

# 밤 8시까지 학교가 돌본다...전남교육청 '늘봄학교' 전면 시행

## 1학기부터 도내 425개교 운영 돌봄·방과후 이용...전담사 배치

전남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초등학교 1학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학기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425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돼 4개의 시범교육지원청과 50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전남 늘봄학교 운영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늘봄지원센터가 구축돼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 모든 학교에 돌봄전담사가 배치돼 전일제로

돌봄 업무를 전담하고, 돌봄교실 식·간식비 및 방학 중 중식비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도 교육청은 지난 26일 전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지원청 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갖고, 운영계획 및 주요 추진사항을 논의하는 등 전남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전액 반영·편성함은 물론, 교육부의 늘봄학교 특고 예산을 추가 확보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 전담인력(기간제교사, 공무원, 단기행정인력)을 우선 지원해 늘봄실무사가 배치되는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 업무가 교원과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아동센터·대학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돌봄부터 진학·취업까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첫발이라는 생각으로, 전남 늘봄학교 운영을 준비해 왔다"며 "안정적인 돌봄뿐 아니라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천여곳으로 확대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늘봄학교 확대에 교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고려해 교육부는 2025년까지 교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늘봄 신규인력을 할 기간제교원 등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 지원실'을 만들어 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교육청, 신창동에 신청사 건립 본격화

### 1500억 투입 2028년 완공 목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청사 전환배치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과 현 청사 활용 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신청사는 광산구 신창동의 옛 학교시설지원단 부지의 건물 철거 후 신축한다. 연면적 3만 4116.9㎡ 규모로 광주시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현 청사(1만7874.4㎡)의 거의 두 배로, 총사업비 1531억원을 투입한다. 이달 초 발표한 새청사 부지 규모 2만8143㎡와 사업비 1222억원보다 늘었다.

시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설계 공모와 시설 공사를 거쳐 2028년 신청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현 화정동 청사는 통합돌봄센터, 교사지원센터, 문화복합도서관,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등으로 재구성된다.

시민협치진흥원은 현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배치된다.

현 광주시교육청 청사는 1988년부터 35년간 사용한 노후 건물로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시설 낙후와 공간 협소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건물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신대, 졸업생 1천 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 중 취업률 1위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6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1월 교육부의 정보 공시에 따르면 동신대학교는 취업률 68.8%를 기록하며 광주·전남 일반대(졸업생 1000명 이상) 중 취업률 1위에 올랐다.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4년 중 12년째 취업률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과별로는 군사학과(96.4%), 한의학과(93.0%), 정보보안학과(87.8%), 작업치료학과(87.2%), 안경광학과(84.2%), 컴퓨터공학과(83.3%), 간호학과(81.9%), 토목환경공학과(80.6%), 생활체육학과(80.6%) 순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동신대는 140여 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1~2학년 때 기초소양과 전공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쌓고 3~4학년 때 국가고시, 임용고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취업사관학교 프로젝트로 DS STAR와 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10명, 10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해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대기업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취업 스펙을 쌓는 만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강한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IPP사업단은 장기현장실습(IPP)과 일학습병행을 진행하며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졸업한 뒤에는 원하는 직장과 직업을 얻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껏 잘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조선대 IR센터, 글로벌대학 사업·RISE 체계 전략적 대응 논의

### 대학혁신정책세미나 개최

조선대학교(총장 김준성) 기획조정실 대학정책연구센터(IR센터)는 지난 25일 글로벌대학 사업, RISE 체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학혁신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김용현 단장(경북RISE사업추진단)을 초청해 'RISE 체계 기반 지·산·학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다.

대학혁신정책세미나는 지난해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재홍 대학원 원장, 김재홍 취업학생처장, 이준식 기획조정실장, 강진희 취업지원부처장, 장삼석 시설관리부처장, 장상국 군사학연구소장을 비롯한 교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김용현 경북RISE사업추진단장은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대학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대학 간 스킨십(skinshi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구락 조선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대폭 변화되는 시기에 광주지역 RISE 센터(광주TP)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

리 대학도 타 지역의 RISE센터와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대, 베트남 주요 대학과 글로벌 교육 교류 활발

### 스윈번대학과 학문·문화 MOU CMC대학과 복수학위제 논의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강화사업 광주대학교(총장 김갑용)가 베트남 주요 대학들과 글로벌 교육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대 김갑용 부총장과 윤인철·조정호 교수는 최근 베트남을 방문, 스윈번 대학과 학문적·문화적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양 대학은 이번 MOU를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연구, 인큐베이팅, 교육 분야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교환학생 파견, 공동 기업가 정신 및 혁신 컨퍼런스, 공동 일자리 창출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양국의 창업기업 및 교육환경 정보 공유 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대 방문단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은 CMC대학을 방문해 컴퓨터 분야



학생 교류 및 복수 학위제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3년 9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CMC 대학은 광주대 교수들이 CMC대학에 와서 2년 강의 후 나머지 1년을 광주대에서 강의하는 2+1 방식을 제안했다.

김갑용 광주대 부총장은 광주대 학생들도 CMC대학에서 1년간 수업받을 수 있는 3+1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자며 내부 검토를 거쳐 추후 세부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